

## 제4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과 근로자 여러분,

뜻깊은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금 전 수상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맞는 무역의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듯이 수출역사 40년 만에 2천억 달러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열두번째 수출강국으로서 지구촌을 누비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순방국 어디에서나 우리 상품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값싼 제품이 아니라 일류상품으로 당당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산업과 무역현장에서 밤낮없이 뛰어 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수출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를 받쳐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역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룩한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무척 어렵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수출이 늘수록 부품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무역구조도 걱정입니다. 여기에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뿐입니다. 기술을 혁신해서 가격과 품질,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과 노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반도체와 디지털 가전,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수출의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서 고부가가치화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서 조기에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진국에 뒤쳐져 있는 서비스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문화 콘텐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서비스 수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 인프라도 세계 일류수준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전자무역 혁신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서 무역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산업의 발전과 무역인력 양성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수출 4천억 달러, 무역 8강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반드시 진입해야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부터 혁신해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수출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부품·소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소득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개발과 생산, 수출의 각 단계별로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수출이 확대되고 해외 조달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와 중장기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외교적 뒷받침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 세계 무역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남미순방과 러시아·인도 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통상협력도 강화되어 수출과 투자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무역인 여러분이 나서서 중국·미국·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있을 아세안+3 정상회의와 유럽 방문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더욱 넓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맙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업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시경제 여건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인정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역량을 믿고 수출 4천억 달러 시대를 향해 다시 한번 뛰시다. 오늘 '무역의 날' 주제처럼 수출에서 희망을, 무역에서 미래를 키워 나갑시다.

무역인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더 큰 성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